

취업 지표 양호?... 단기·고령층만 늘었다

7월 제주 고용동향... 취업자 2.7% ↑·실업률 ↓
1년 새 1만1000명 증가... 60세 이상이 9000명
취업자 20~40대 줄고 36시간 미만 단기근로 급증

제주지역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1만명 넘게 늘었지만 증가분의 상당수가 36시간 미만 단기 취업자와 고령층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침체 속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지 못한 이들이 임시·일용직과 무급가족종사자 등 불안정한 고용 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국가데이터처 제주사무소의 “7월 제주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취업자는 41만5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7% (1만1000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72.0%로 1.9%포인트(p) 상승했고, 실업률은 0.9%로 0.9%p 하락했다. 취업자 수와 고용률, 실업률 등 주요 지표만 놓고 보면 양호한 흐름이다. 하지만 취업시간과 연령별로 들여다보면 고용의 질을 둘러싼 우려가 커진다.

지난달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21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23.7% (6만7000명) 감소했다. 관련 통계 작성 이후 7월 기준 1999년 (21만명)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적은 규모다.

반면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19만1000명으로 1년 전보다 66.1% (7만6000명) 급증하며 7월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1~17시간 일하는 단기 취업자도 5만1000명으로 7월 기준 역대 가장 많았다.

인구 증가에 따라 전체 취업자 수가 늘고 아르바이트 시장 확대 등 고용시장의 유연성을 감안하더라도 지난해 단기 취업자의 증가

폭은 이례적이다. 전체 취업자 증가가 단시간 일자리에 크게 의존한 셈이다.

종사자 지위별로도 불안정 고용의 증가세가 확인됐다.

임금근로자는 28만명으로 1년 전보다 2.0% (5000명) 증가했다. 이 가운데 상용근로자는 19만1000명으로 0.5% (1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임시근로자는 7만7000명으로 5.5% (4000명), 일용근로자는 1만2000명으로 4.5% (1000명) 각각

증가했다.

비임금근로자는 13만6000명으로 4.2% (6000명) 늘었다. 자영업자는 11만명으로 2.7% (3000명) 증가했고, 무급가족종사자는 2만5000명으로 11.5% (3000명) 늘었다.

연령별 취업자 증가세는 고령층에 더욱 집중됐다.

20대 취업자는 4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0.5% 감소했고, 30대는 6만4000명으로 1.4% (1000명), 40대는 9만명으로 2.6% (2000명) 각각 줄었다. 반면 50대 취업자는 10만1000명으로 4.6% (4000명) 증가했고, 60세 이상은 11만6000명으로 8.2% (9000명) 늘었다. 특히 60대 취업자는 7만명으로 6.0%, 70세 이

상은 4만5000명으로 11.9% 각각 증가했다.

전체 취업자 증가분 1만1000명 가운데 60세 이상 취업자 증가분이 9000명에 달해 증가분의 대부분을 차지한 것이다. 여기에 단시간 취업자까지 크게 늘면서 최근 제주 고용시장이 고령층과 단기 일자리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가데이터처 제주사무소는 “임시·일용직 증가와 무급가족종사자 증가, 60세 이상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증가 36시간 미만 취업자 수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의 추이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문미숙기자



농심 보듬는 물백 12일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농민들이 행정기관에서 준비한 물백에서 물을 받고 있다.

강희만기자

제33회 한라환경경대상 수상자

시상식: 8.24(월) 15:00 한라일보사 3층 회의실

한라환경경대상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

한라환경실천상

- 최우수 - 이유정 (이호어촌계)
- 우 수 - 청주도시공사

한라환경지킴이상

- 최우수 - 학교부문 : 벤자민인성영재학교
- 교사부문 : 임지은 (검바위초등학교 교사)

한라환경UCC공모전

- 최우수 - 일반 및 대학부문 : 한창민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 중 등 부 : 황주하 (표선중학교 3학년)
- 우 수 - 일반 및 대학부문 : 박희원 (우체국금융개발원)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일보

9월 정기국회 ‘제주 현안’ 다뤄질까

국비 목표 2조4576억 ‘주목’
도, 행안위 국정감사 기대

3주 앞으로 다가온 100일간의 정기국회가 제주 국비 예산을 지키고, 주요 법안을 처리하며 정부 정책에 제주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계기가 될 지 주목된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통상 9월 1일 개최하는 정기국회가 다가오면서 각 국회의원실을 비롯해 정부 부처들이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100일 내외 기간으로 운영되는 정기국회에서는 예산·법안 심의와 국정감사 등 국회의 주요 업무가 집중적으로 다뤄진다.

6·3 지방선거를 이유로 속도를 내지 못했던 법안 심의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는데, 제주 관련 법안 중에는 도민들의 항공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등이 최근 잇따라 발의돼 국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오랜 현안인 헬스케어타운 조성 사업 정상화를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제주 지정면제점의 품목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은 국회 심의가 지지부진해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이다.

2027년 정부 예산안은 9월 초 국회로 제출돼 각 상임위별로 심의가 이뤄진다. 제주도는 2027년도 국비 확보 목표액을 2조4576억원으로 설정하고 있다. 정부예산안에 최대한 반영하되, 누락될 경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회 절충이 요구된다.

또 이번 국정감사 기간 민선 9기 위성군 제주도정에 대한 행정안전위원회의 감사가 제주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제주도정 입장에선 감사에 대한 부담도 있지만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제주 현안을 절충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국회=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제주 관광명소 ‘쇠소깍’ 물길 막혀 호수됐다... 3면 / 4·3 참상 간직한 ‘다랑쉬굴’ 국가문화유산으로... 4면

대한민국 광복 81주년을 경축합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농심천심

농업가치 국민공감! 농심천심 운동

서귀포시농축협운영협의회
의장 강성방

농협 서귀포시지부
지부장 강대규

국민의 먹거리를 키워냅니다
도시와 경제를 살립니다
우리의 삶터이자 일터이며 쉼터인
우리 고장 농촌을 지켜갑니다

대정농협 조합장
강성방

제주안덕농협 조합장
이한열

중문농협 조합장
김성범

서귀포농협 조합장
정기철

효돈농협 조합장
백성익

제주위미농협 조합장
현재근

제주남원농협 조합장
고일학

표선농협 조합장
김용우

성산일출봉농협 조합장
박명중

서귀포시축산농협 조합장
김용관

제주감귤농협 조합장
송창구